

# 광주·전남 경찰 치안활동 돋보이네

## 광주경찰 5대 범죄 18% 줄어... 감소율 전국 1위

## 전남경찰 지역민 체감안전도 평가 2년 연속 1위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안정적인 치안활동을 펼쳐 각각 5대 범죄 감소율과 체감안전도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경찰청은 지역민의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5년간 전국 상위권을 유지, 지역민이 느끼는 치안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년 상반기(1월1~6월30일) 대비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발생이 8230건에서 6729건으로 18.24% 감소했다. 이는 17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

균 5대 범죄 발생 감소율은 4.83%에 그쳤다. 광주지역은 인구 10만명 당 5대 범죄도 454.7건으로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광주경찰은 그동안 5대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해왔다.

광주경찰은 특히 40개 지역 경찰서에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을 활용해 관내 범죄다발지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시간·장소별 취약지역을 선정 한 뒤 거점근무 및 특별순찰선을 지정·운영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찰관 1명이 1일 5명의 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1·1·5 운동'을 통

해 주민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치안활동에 즉시 반영하는 등 주민 밀착형 경찰활동을 강화한 점도 5대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동력이 됐다는 게 광주경찰의 설명이다.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범죄 다발지역에 맞춤형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에 CCTV·보안등·스마트가로등 등 치안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안전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경찰도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올 상반기 종합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지방청 중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는 지난 1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화설문을 통해 전남도내 주민 2100명을 대상으로 5개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남경찰은 분야별 안전도와 범죄 안전도, 범죄서 준수도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교통사고 안전도와 전반적 안전도 항목에선 2위를 차지해 전체 종합평균 77점(100점 만점)으로 전국 1위의 성적을 냈다. 전남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남경찰은 이번 체감안전도 1위는 도·농 복합지역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과 주민의 치안수요(Needs)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공동체 치안 전개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전남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담양 우박 맞은 소나무 枯死 진행 5일 담양군 금성면 아산에서 소나무 등이 붉은색을 띠며 고사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지난 5월31일에 쏟아진 대형 우박이 나무에 생채기를 내는 바람에 산림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시달리는 진도 주민

## 전남대병원 조사...주민 16%·자원봉사자 20% 외상후스트레스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지역 주민 10명 중 2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주연 교수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5월부터 한 달간 진도 주민 2298명(남성 1144명, 여성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사 이후 사건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쉽게 놀라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고 답한 주민은 362명(16%)이었다.

진도 팽목항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한 진도주민 151명(20%)은 뚜렷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였고 전문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반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큰 사건·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지켜보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서도 뚜렷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주민 가운데 남성 161명, 여성

201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였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 학술지 '통합정신의학'(Comprehensive Psychiatry) 최근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의 교신저자인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안 교수가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매우 크다 보니 희생자 가족을 가까이서 지

켜보고, 돕는 상황만으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재난의 피해자는 물론 재난 현장의 구조인력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난에 노출된 다양한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진도심리지원단장으로 구조대원과 지역주민의 의료 지원을 진행했던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진상 교수는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서비스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달몰림 17:17  
해질 19:50    달집 03:10

**가뭄 해결 기대**  
낮 기온 30°C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덥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비	25/30	보성	비	23/26
목포	비	24/27	순천	비	24/27
여수	비	23/26	영광	비	24/29
나주	비	23/29	진도	비	23/27
완도	비	23/27	전주	차차흐려져	24/31
구례	비	23/29	군산	비	24/30
강진	비	23/27	남원	비	23/30
해남	비	23/28	홍산도	비	21/25
장성	비	23/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동)	남동~남 0.5~1.5	남~남서 0.5~1.5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54	00:24
	17:48	21:12
여수	밀물	썰물
	01:25	07:06
	13:12	20:02

◇주간 날씨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	☁	☁	☁	☁	☁	☁
26/30	25/30	24/29	24/31	24/30	24/32	24/32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보통
- 피부질환 보통

# 열대야... 벌써 잠 못 드는 밤

## 광주·영암·순천 등 6곳 전년보다 3일 빨라

광주·전남지역에 올 들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보다 3일 일찍 열대야가 나타났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지난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완도 26.3도, 영암 26.1도, 해남 25.8도, 목포 25.7도, 광주 25.2도, 순천 25.2도 등이다. 광주의 열대야는 지난해 7월5일부터 3일 빨랐고, 최근 10년(2007~2016년) 평균(7월17일)보다 16일 빠른 것이다.

다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완도 26.3도, 영암 26.1도, 해남 25.8도, 목포 25.7도, 광주 25.2도, 순천 25.2도 등이다. 광주의 열대야는 지난해 7월5일부터 3일 빨랐고, 최근 10년(2007~2016년) 평균(7월17일)보다 16일 빠른 것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청소년 성조숙증 3년새 28% 증가

## 10만명당 환자 광주 187명·전남 89명... 전국 중하위권

성조숙증으로 치료받은 청소년이 지난 3년간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중간 수준, 전남은 환자가 적은 편에 속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유아성한의원 성조숙증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2016년 시군구별 성조숙증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조숙증(주진단명 기준) 환자는 해마다 증가했다.

환자는 2013년 6만7250명, 2014년 7만1966명, 2015년 7만5866명, 2016년 8만6869명으로 최근 3년간 28% 증가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10만명당 환

자를 비교해보면, 광주(187.2명), 서울(170.3), 경북(167.8명), 전북(155.2명)은 중간 정도였다. 또 부산(122.0명), 전남(89.0명), 충남(74.6명)은 환자가 적은 편이었다.

성조숙증은 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돼 실제 나이보다 2차 성징이 빨리 시작되는 질환이다. 여아는 만 8세 전에 가슴이 발달하고,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는 증상을 보인다. 성조숙증은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만, 식습관, 환경호르몬, 성적 자극, 유전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로로 166(해가온빌딩 1층)